

해부학 실습교육에서 죽음교육으로서 서사의학의 적용

장경주¹, 이경민², 배재훈², 이재호^{1,3}

¹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지원센터, ²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³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The Application of Narrative Medicine as Death Education in Anatomical Practice Education

Kyung-Ju Jang¹, Gyeong-Min Lee², Jae-Hoon Bae², Jae-Ho Lee^{1,3}

¹Student Support Center,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³Department of Anatomy,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 In domestic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along with the need for narrative education, narrative competence is emphasized as crucial elements that future doctors should possess for their clinical practice. Narrative medicine, originating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has garnered attention in the medical community.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specific educational methods and the application of narrative medicine in domestic medical education. This study presents the points of application of narrative medicine for death education in anatomical practice education,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narrative competences in medical education and suggesting ways to apply narrative medicine. The applications of narrative medicine as death education in anatomical practice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application of philosophical discourse based on narrative questions. Second, the application of directive writing based on subjective and intuitive observations of the cadaver's body parts. Third, the application of story therapy through literature and artwork. In this study, the narrative medicine as death education in anatomical practice education supplements the limitations of biomedicine-centered objective elements and rationality-centered positivist medical education. Narrative reading and writing develops narrative competence by incorporating medical humanities elements, such as creativity, subjectivity, and more, into medicine. Additionally, this study introduced specific educational methods for narrative medicine in anatomical practice education, incorporating elements of medical humanities. This study's contribution is its integrated approach to medical education, combining natural science and humanities education in response to the requirement for human-centered medicine in medical education. Through the use of narrative medicine, this study suggests another valuable educational approach aligned with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by recognizing various human factors anticipated in future medical settings.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May 30, 2024; **Revised:** June 25, 2024;

Accepted: June 26, 2024

Correspondence to: 이재호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E-mail: anato82@dsmc.or.kr

Keywords : Medical humanities, Narrative medicine, Anatomical practice education, Death education, Narrative competence development

서론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로부터 시작된 근대 해부학은 실증을 통한 경험과학의 영역이며, 인체의 이해를 바탕으로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 분야이다. 해부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베살리우스의 해부도에 그려진 인체는 하나의 구조물이 아닌 자연의 일부인 인간, 즉 죽음을 초월하여 살아있는 인간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해부학은 의학·예술·과학·생물 그리고 인문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영역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1].

대부분의 의과대학생은 해부학 실습교육에서 처음으로 타자의 죽음을 목격한다. 그들은 기증된 시신을 통해 죽음조차 숭고한 의미가 있음을 교육현장에서 인식하며 인체의 구조와 변이를 익히고, 해부학적 용어를 학습하며 의학의 기초를 다진다. 이러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시신이 주는 인간의 죽음에 관한 생물학적 이해뿐만 아니라 타자의 죽음을 통한 인간의 실존과 한계를 마주하며 죽음의 곤경에 처한 자신의 유한성 또한 인식하게 된다[2]. 그러므로 해부학 실습교육은 기존의 실증적인 경험과학으로서의 의학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실존에 관한 물음과 해안, 즉 의료인문학교육이 중첩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부학 실습교육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인간의 죽음 이야기와 그 죽음을 의미 있게 하는 삶의 이야기로서의 ‘죽음교육(death education)’이 포함되어야 한다. 죽음교육이란 생물학적 죽음, 죽음의 과정, 사별과 연관된 다양한 측면의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죽음 관련 주제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슬기가 학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죽음교육은 죽음학(thanatology)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은 태어남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평생의 교육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3].

보건의료계열 대학생 대상으로 시행한 이전 연구에서는 죽음교육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죽음교육은 개인의 삶의 의미를 정립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결과적으로 의료인들의 직업만족도와 더 나아가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죽음교육은 인간과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성장을 독려하고, 죽음에 관한 인식과 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임상적 환경에서 만나는 환자

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환자의 생명을 다루게 될 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4-7].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한 죽음교육이 기여한 여러 가지의 사항을 의학교육 안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료인문학교육의 한 방법론인 서사의학(narrative medicine)을 해부학 실습교육에 접목하고자 한다. 해부학 실습현장에서 죽음의 난제를 직면한 학생들은 생물학적·객관적 관찰자로서 기증된 시신을 관찰한 것 이외에 죽음을 마주한 자신의 주관적 경험과 시신의 몸의 기록에 관한 직관적 관찰자로서의 철학적 이야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의료인문학 관련 연구들에서는 서사교육의 가능성과 과제를 제시하며 서사적 기반의 의학교육 모델 등의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의학교육 내에 개별 교과목이나 학습 내용에 있어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8,9]. 따라서 이번 연구는 의학교육에서 서사적 역량 개발과 서사의학의 구체적인 교육 적용 방안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부학 실습교육에서 죽음교육을 위한 서사의학의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사의학이란

서사의학은 의학과 문학 및 서사학(narratology)의 결합으로 탄생하였다. 서사의학의 광의적 개념은 질병과 관련된 환자의 체험 이야기를 임상학과 의학교육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학 및 의학교육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서사의학의 대표 학자인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샤론(Rita Charon)은 서사능력이란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경청하며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에 대해 공감할 줄 알며 이러한 기본을 토대로 환자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다[10].

영국인으로 서사의학의 창시자인 그린해프(Trisha Greenhalgh)는 ‘이야기근거의학(narrative-based medicine)’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기존의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반대적 또는 보완적 개념으로서 이야기근거의학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는 임상현장에서 의사는 신체 증상에 대한 진단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

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되는 질병의 외적 진단 기준, 환자의 개인적 이야기, 그리고 의사 자신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통합한 것을 토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하였다[11].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 서사의학의 목적은 환자의 질병 체험 이야기에 대한 집중적 주의와 경청, 환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환자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의사와 환자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서사 능력의 개발이라 하겠다[12].

의료인문학은 근거중심의 의학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인간 중심의 의학, 즉 의료인문교육에서 서사의학은 질병 중심의 의학에서 배제되었던 개별 환자의 사회·심리적 요인이나 요구 및 선호 사항 등을 환자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 중심의 의료인문학적 접근에서 서사의학의 목적은 생명의 소중함, 삶의 의미, 환자의 질병 발생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임상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서 의료인문교육 목표에 부합한 것이다[13].

서사의학의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질환과 돌봄에 대해 기록하도록 의사, 간호사와 환자를 격려하는 것이다. 둘째,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소설, 시, 질환 서사 등에 대해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글이나 이미지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소그룹 집단 내에서 철학적 질문에 대한 서사적 답문에 참여하고, 문학적 내용을 자세히 읽고 소감을 발표하며 창작한 글을 서로 나누게 함으로써 문학 감수성과 공감 능력 및 경청하는 자세를 발달시키게 된다. 특히 그들의 경험과 느낌을 토대로 글쓰기와 표현하기를 통하여 창의성을 발견하고, 표현 능력인 서사적 역량이 함양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 결과는 학생들의 서사적 역량을 개발함과 동시에 서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지혜이며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임상적 만남과 치료적 관계를 위한 건설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14].

의학교육의 중요성이 인간 중심의 의학으로 전환하는 현 시점에서 특히 시신을 다루는 해부학 실습교육은 전인적 인간에 대한 이해, 생명 존중의 자세, 시신을 대하는 태도와 사려 깊은 마음가짐 등 미래 의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태도를 교육하기 위해 서사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

해부학 실습교육에서 시신을 본다는 것

‘삶이란 서사를 찾기 위한 활동과 열정이다’라고 언급한 프랑스 철학자 리코르(Paul Ricoeur)에 의하면 삶이란 서사와 결코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15]. 해부학 실습교육은

죽음에 대한 직면과 함께 인간실존에 관한 주제 즉, ‘삶과 죽음’이라는 현상학적 물음이 제기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해부학 실습교육은 그 자체로서 의학적이며 서사적인 교육현장이라 할 수 있다.

‘해부학 실습실에서 시신을 본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혹은 그녀의 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해부학 실습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철학적 질문을 통하여 시신을 마주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죽음의 유대감’, ‘죽음의 유한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해부학 실습교육은 생물학적으로 사람 몸의 구조를 이해하고 더불어 실존적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며 이러한 물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죽음의 물음과 인간실존의 해인이 존재하는 해부학 실습현장은 과학적이고 실증주의적 의학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의학교육이 실천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현장에서는 삶과 죽음의 관념을 만들고 의미를 전달하는 근원적인 방법인 이야기를 토대로 학생들은 죽음의 주제를 마주해야 한다.

시신의 ‘몸’은 사체이자 생물학적 기록이며, 또한 살아낸 흔적이자 이야기이다. 해부학에서 ‘몸’은 실증 경험으로서 과학적으로 읽혀진다. 개인의 병력,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알려주는 정보를 읽기 위해 몸은 해부된다. 이때 단순히 파편화되고 조각난 신체의 부분은 인간이 아닌 대상화된 사물로서 취급될 것이다. 그러나 몸의 서사 읽기는 몸의 주관적 기록물, 즉 서사적 관찰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하나로 연결되게 하며 조각난 대상을 연결된 이야기로 통합시킨다. 신체의 부분은 이야기로서 통합되고, 인간의 전인격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이야기가 되면서 하나의 인격 안에 과거의 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다.

해부학 실습교육에서 서사의학의 적용

그렇다면 지금도 부족한 해부학 실습시간 안에 어떻게 서사의학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해부학 실습교육은 시신을 통하여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의미론적 물음이 제기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해부학 실습을 통한 인체 각 부위의 용어와 의학적 지식을 학습함과 동시에 철학적 담론과 글쓰기를 통하여 인간에 대한 윤리적 태도 즉, 미래 의료인으로서 프로페셔널리즘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해부학 실습교육에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성찰적 교육의 가능성을 서사적 방식을 통하여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생물학적인 인간을 이해하고자 신체의 부분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자연과학인 해부학 실습교육에 인간에 대한 전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한 인문학적 교육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콜럼비아 대학에서 적용하는 사론의 서사의학의 세 가지 운동 즉, 능숙한 듣기를 위한 주의 집중, 타인을 인식하기 위한 표현의 힘, 서사적 접촉에서 나온 관계성의 가치를 죽음교육에 실천하고자 한다[16].

이러한 해부학 실습교육현장에서의 죽음교육을 위한 서사 의학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적 질문을 토대로 한 철학적 담론이다(Table 1). ‘죽음을 직면한 현장에서 학생들은 해부학 실습교육으로부터 어떤 경험을 할까?’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서사해석학적 접근으로서 의미의 창조와 서사적 구조의 역동적인 해석 과정을 강조하게 된다[17]. 이 서사적 질문은 서사적 사고를 바탕으로 특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 당면한 사건에 대하여 서사적 지식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별 경험이 전체로서의 삶을 이루는 부분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보여줌으로써 개별 경험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18]. 이야기는 단순히 경험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상호교환의 과정을 통해 경험을 형성한다. 해부학 실습교육에서의 삶과 죽음에 관한 철학적 질문과 담화로 학생들은 해부실습 중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사적 역량이라 할 수 있는 자기인식과 성찰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다. 특히 상호소통적 관계 경험을 토대로 자기의 생각과 느낌 같은 주관적 감정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서사적 담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에서 학생들은 특별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서사적 질문을 기초로 한 이야기의 경험은 미래 의료현장의 서사를 통한 실천 행위로서 의료의 본질과 환자-의사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19].

둘째, 시신의 신체 부위에 대한 주관적·직관적 관찰을 한 후 지시문에 따라 시행하는 글쓰기이다(Table 2). 시신 기증자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전 일생을 연상하면서 지시문에 따른 글쓰기의 적용이다. 예를 들어 해부학 실습교육에서 시신의 신체 부위와 관련된 이야기로서 ‘귀’에 대한 실습의 경우 ‘그(녀)가 생애 다시 듣고 싶은 말과 내용이 있다면~’과 같은 예시문을 들어 글쓰기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전인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원리와 기능에 대한 파편화된 신체의 대상을 전체화시켜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서사적 인간 이해는 해부학 실습에서 접하는 생물학적으로 대상화된 사람을 인문학적 요소로서 한 인격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해부학이 생의학적(biomedicine) 관점에서 몸의 기록을 객관적 관찰자로서 자세히 보고 기록하는 것이었다면, 서사의학의 적용은 몸의 기록을 직관하며 시신을 서사적으로 읽어보고 그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이라 하겠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 표현에 자동으로 반사되는 거울과 같으며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사람에게 특정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능동적 과정인 것이다. 삶이 죽음으로 연결된 그(녀)의 이야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인생의 이야기로 귀결된다. 이러한 공감 교육의 효과는 더 나아가 환자와 의사의 해석적 만남을 가능케 하며 의사가 진단과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기술적이며 인식론적인 측면을 넘어 의료의 존재론적, 도덕적 본질에 도달하게 한다[20].

셋째, 문학 및 예술작품을 읽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 치료의 적용이다(Table 3). 서사적 인간 이해를 위한 도구로서 문학작품 및 예술작품을 활용할 수 있다[21]. 이를 위해 학생들은 조별 활동으로 문학작품을 읽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짧은 글쓰기를 한 후 함께 쓴 글을 나누

Table 1. Narrative questions for philosophical discourse

Narrative questions
<p>‘If I were to die today’, let’s freely discuss my death. Through conversations with my peers, what new insights, or fresh understandings, could I gain about it? What is the meaning of death that I discover during this time? Let’s discuss these questions with my peers.</p>
<p>What am I feeling and thinking, as I confront death during anatomical practice education? What does this experience mean to me? Let’s discuss this with my peers.</p>
<p>Imagine a situation where a family member decides to donate his or her body. Let’s discuss the experience I would encounter in this scenario and the meaning I derive from it in detail.</p>
<p>Think of the family of a cadaver donor. What might their experience have been like? Let’s reflect on them and share the meaning of this time with my peers.</p>
<p>If I were a cadaver donor, what kind of story would I like to share with the students facing me in anatomical practice? In this scenario, what would I feel and experience? Let’s discuss the meaning of this time with my peers.</p>

Table 2. Directive writing based on the body part (free-form writing)

Directive writing	Body part
If there are specific words or contents he or she would like to hear again in his or her lifetime, let's write a short piece about it.	Ear
If there is 'sound' that he or she never wants to hear again or that deeply affected him or her, what could its contents be? Let's write the message of pain that echoed in his or her ears.	Ear
Let's write a short piece about the most stunning 'sight' as seen through his or her eyes during youth, middle age or old age.	Eye
Let's write a short piece while imagining he or she has only a few days left to be able to see the world.	Eye
If there is a 'memory' he or she never wants to forget, what could it be? Let's write a short piece about memory in his or her brain.	Brain
What were his or her dreams? To achieve those, what activities did his or her brain engage in? Let's write a short piece about the 'intellectual activities' in his or her life.	Brain
Let's write a short piece about the most valuable and rewarding 'stride' in his or her life.	Foot
Imagine he or she could no longer walk again. Let's write a short piece about his or her sense of despair.	Foot
Let's write a short piece about the masterpiece created in his or her lifetime through the hard work of his or her 'hands'.	Hand
Let's write a short piece about 'the scent' and its record that he or she can never forget.	Nose
Let's write a short piece about the unforgettable 'taste' and its memory he or she experienced.	Tongue
Let's write a short piece about the warmest 'texture' he or she experienced.	Skin
Let's write a short piece about the terrible agony he or she once experienced.	Skin
Let's write a short piece about an event in his or her life that made him or her the heart race or sink.	Heart
Imagine the moment he or she held someone with her or her whole heart. Let's write a short piece about this.	Chest
Let's write a short piece about her experience during her pregnancy.	Uterus
If she were pregnant, what would be the fetal name? Let's write a short piece about the story she would have shared with the baby in her womb (uterus).	Uterus
Imagine he or she were to suffer from a muscular disease that couldn't support him or her at young age. Let's write a short piece about this.	Muscle

Table 3. Introduction to literary work

Literary work and story therapy	Genre
<The Death of Ivan Ilyich> Leo Tolstoy, Moonye Publishing, 2016	Classic
<The Sickness Unto Death> Søren Kierkegaard, Samjungdang, 1976	
<Man's search for meaning> Frankl, Viktor E, Chungabooks, 2005	Novel
<The House of God> Samuel Shem, Sejongbooks, 2019	
<Reflections on a Beautiful Death>, Hermann Karl Hesse, Silcheon Munhak, 1996	Poetry
<What a Thousand Deaths Will Tell Me> Kim Yeohwan, Forestbooks, 2021	Essay
<Final exam : A Surgeon's Reflections on Mortality>, Pauline W. Chen, Gongjon Publishing, 2008	
<Wit> film, Mike Nichols, director, 2001	Film
<My sisters Keeper> film, Nick Cassavetes, director,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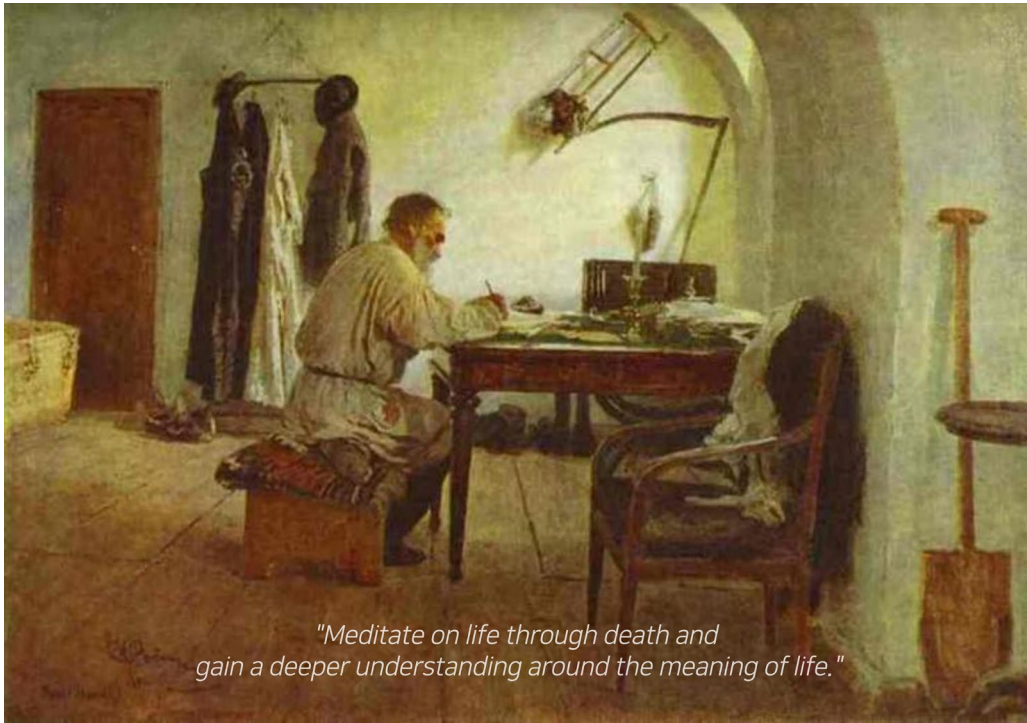


Fig. 1. Understanding the death through Tolstoy's <The Death of Ivan Ilyich> from the art by Ilya Repin (1981).

는 시간을 갖는다. 의료사회학자 프랭크(Arthur Frank)에 의하면 ‘자아는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 재창조되며, 이야기는 단순히 자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는 자아의 매개체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즉, 동료와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자신에 관한 서사적 설명은 개인의 서사적 정체성을 보고함과 동시에 애초에 주체로서의 경험을 창조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22]. 이러한 문학작품을 통한 읽기와 쓰기는 이야기 치료의 효과로서 인간이 직면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만나게 되는 치유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문학작품을 읽고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은 서로를 공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23,24]. 해부학 실습교육현장에서 인간의 죽음과 생의 유한성을 직면한 학생들의 정서는 두려움에 얼어붙거나, 회피적 반응으로서 무감각, 우울 등 다양한 정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들에게 문학작품의 일부를 소개하여 자아의 매개체로서 그들이 피하고 혹은 외면했던 감정을 만나게 하고, 이를 이야기하도록 함으로써 수용 가능한 정서로 환원할 수 있는 이야기 치료의 효과를 줄 수 있겠다(Fig. 1). 이러한 서사적 역량 개발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불확실함을 견디고 정서적인 소진을 줄이도록 한다. 또한, 환자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인식 능력과 함께 임상 현장에서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5]. 실제 해부학 실습시간에 많은 분량의 문학작품을 읽고 서사의학적인 교육을 하기는 쉽지 않으며, 서사의학의 교육으로 인해 해부실습의 본 목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자는 제시한 작품의 일부분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실습 중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글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학회 차원에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자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기초의학교육에 의료인문학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시도로 해부학 실습교육에서 죽음교육으로서 서사의학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사적 질문을 토대로 한 철학적 담론의 적용이다. 다음으로 해부학 실습교육 중 시신의 신체 부위에 따른 주관적 혹은 직관적 관찰을 통한 지시문에 따른 글쓰기이다. 마지막으로 문학 및 예술작품을 활용한 이야기 치료의 적용이었다.

해부학 실습교육에서의 죽음교육은 서사적 적용을 통해 시신의 몸에 관한 기록을 객관적 관찰자로서 바라보고 서사적 읽기를 통하여 통전적(integrity) 인간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서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시신을 과거의 삶과 사건 즉, 살아낸 장소와 시간에 재위치시키는 것이며, 죽음과 삶을 한 인격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서사적 역량 개발을 통해 인간에 대한 전인적인 이해와 공감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의과대학생들로 하여금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죽음을 통한 존귀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헤아려보게 한다. 이런 서사적 역량은 학생들의 생명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며 미래 의료현장에서 인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의학 즉, 의료인문학교육에 부합한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부학 실습 교과목에 대한 서사의학의 적용은 의학교육에서 요구하는 인간 중심의 의학으로서 자연과학과 인문학교육을 융합한 의료인문 교육방법의 새로운 모델이라 하겠다. 이번 연구의 시사점은 해부학 실습교육에 서사의학의 구체적 교육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생의학 중심의 객관적 요소와 합리성 중심의 실증주의적 의학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주관적, 창의적 요소 등의 서사적 읽기와 쓰기를 통해 서사적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의학에 의료인문학적 요소를 포함하는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특정 교과목에 제한된 서사의학의 적용 방안이라는 것과 서사의학의 적용에 관한 효과성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학 교육과정 내에 서사학을 적용한 다양한 교육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서사학 교육의 적용 사례와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Vesalius A. De Humani Corporis Fabrica. Eom Chang-seop commentary, Seoul: Grimmsicclassic; 2018.
2. Lee SM, Kim SY. A study of korean's perception on the meaning of life & death. Korean Bioethics Assoc. 2012;13: 1-18. Korean.
3. Lee YJ, Jo KW, Yee HJ. An exploration of death education model for high-touch major students. Asian J Edu. 2006;7: 121-40. Korean.
4. Lee YJ, Kim YS. Difference of the death perception, death attitude and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completion of bioethics education. Korean Bioethics Assoc. 2017;18:95-109. Korean.
5. Yu EY, Yang UJ, Jung EY. Attitudes toward death awareness among department of health university students. J Digit Converg. 2017;15:241-51. Korean.
6. Yoon JH, Ha JY. Nurses' awareness of death and meaning of life. J Korean Acad Fundam Nurs. 2013;20:381-8. Korean.
7. Lee YJ, Kim YS. Difference of the death perception, death attitude and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completion of bioethics education. Korean Bioethics Assoc. 2017;18:95-109. Korean.
8. Kim Y, Lee KM. Inquiry the possibility of narrative in medical education. J Narrative Edu Res. 2019;7:141-58. Korean.
9. Hwang IK. Narrative in medicine, focusing on current status and tasks. J Humanit. 2020;45:435-64. Korean.
10. Charon R. Narrative medicine: a model for empathy, reflection, profession, and trust. JAMA. 2001;286:1897-902.
11. Greenhalgh T. Narrative based medicine in an evidence based world. BMJ. 1999;318:323-5.
12. Charon R. What to do with stories: the sciences of narrative medicine. Can Fam Physician. 2007;53:1265-7.
13. Park YI. Narrative Medicine: Storytelling Methodology for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Seoul: Youkrack; 2022.
14. Montgomery K. How Doctors Thin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5. Ricoeur P. Life in Quest of Narrative. In: On Paul Ricoeur. New York: Routledge; 2002. pp. 34-47.
16. Charon R, Dasgupta S, Hermann N, Irvine C, Marcus ER, Rivera CE, et al.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Narrative Medicine. Seoul: Dongasiabook; 2021.
17. Charon R.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Narrative Medicine. New York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18. Polkinghorne D.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New York (Stat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19. Hunter KM. Doctors' Stories: The Narrative Structure of Medical Knowled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20. Svenaeus F. Phenomenological Bioethics: Medical Technologies, Human Suffering, and the Meaning of Being Aliv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8.
21. Lee S.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death in literature education-focused on poetry education. J Korean Language Edu. 2021;47:245-68. Korean.
22. Frank AW. The Wounded Storyteller: body, illness, and eth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23. Kim JA. A study on the death consciousness and literary therapeutic way for sympathy in the hyangga <Ode to the deceased sister>. J Literar Ther. 2020;54:141-72. Korean.
24. Kim MH. A study on literary therapeutic meaning of 'death motif' in children's literature. Korean Language Literature. 2019;82:375-404. Korean.
25. Tompkins J. Reader-Response Criticism: From Formalism to Post-Structuralism.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0.

간추림 : 국내 의료인문학교육에서는 서사의학(narrative medicine)의 교육적 필요성과 함께 미래의사로서 임상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서사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서사의학은 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 의학교육에서는 서사의학의 구체적인 교육방법 및 적용에 관한 연구들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의학교육에서의 서사적 역량 개발과 서사의학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해부학 실습교육에서 죽음교육(death education)을 위한 서사의학의 적용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해부학 실습교육에서 죽음교육으로서 서사의학의 적용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적 질문을 토대로 한 철학적 담론의 적용이다. 둘째, 기증된 시신(cadaver)의 신체 부위에 대한 주관적·직관적 관찰을 토대로 한 지시문에 따른 글쓰기의 적용이다. 셋째, 문학 및 예술작품을 활용한 이야기 치료의 적용이다. 이 연구에서 시도한 해부학 실습교육에서 죽음교육으로서 서사의학의 적용은 생의학 중심의 객관적 요소와 합리성 중심의 실증주의적 의학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서사적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의학에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요소와 같은 의료인문학적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서사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해부학 실습교육에서 서사의학의 구체적 교육방법을 제시하여 의료인문학적 교육 요소를 포함하는 교육방법을 소개하였다. 연구의 기여점은 의학교육에서 요구하는 인간 중심의 의학에 자연과학과 인문학교육을 융합한 의학교육의 통합적인 시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학교육의 서사의학의 적용 방안을 제시함으로 미래 의료현장에서 접하게 될 여러 인간적인 요소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의료인문학교육에 부합한 교육 방안을 시사하였다.

찾아보기 낱말 : 의료인문학, 서사의학, 해부학 실습교육, 죽음교육, 서사적 역량개발